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3

“우리도 함께 뛰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절 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달리기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 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기록보단 건강, 시즌 스타트

광주 ‘챔프마라톤’

“기록보다는 건강하고 즐겁게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동호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광주마라톤동호회 ‘챔프마라톤’(이하 챔프)의 김석호 신임 회장이 회원간 친목 도모에 주력하겠다는 올 운영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03년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동호회를 만들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현재 회원 수가 100명(정회원 50명, 준회원 50명)인 ‘챔프’는 1주일에 세번씩 달리기 모임을 갖고 있다. 화요일엔 오후 7시 상무시민공원에 모여 트랙을 돌면서 인터벌, 근력, 보강훈련 등을 실시한다. 상무스 각장에서 시작하는 광주전반달리기는 목

1주일 3차례 달리기 모임

요일엔 양동시장까지 15km, 일요일엔 지원동까지 21km를 각각 달린다. 가끔은 4수원지 청풍침터에서 5·18국립묘지까지 달리기도 한다.

김석호 회장은 “이 대회가 지역대회는 규모가 크고, 코스도 단조롭지 않고, 주변 경관이 좋아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대회이다”면서 “시즌 시작을 알리는 대회인 만큼 마라톤 초보회원들에게 권하



기록보다는 회원들간의 인화를 중요시하는 ‘챔프’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끝까지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싶은 대회”라며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비록 기록보다 인화를 강조하는 동호회이지만 ‘특출난 기록’을 지닌 회원들도 있다. 최항섭·임익환씨 등 4명은 서브-3(풀코스를 3시간 이내 완주)를 달성한 건각들이다. 52세의 김백수씨는 풀코스를 50회 이상 달려도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과시하고 있다. 김민철씨 등 17명은 지난해 순천만 울트라 대회에서 100km를 끝까지 달렸다.

김석호 회장은 제주도와 태안서 열리는 철인 3종경기를 완주, ‘철인의 훈장’을 달

영산강 정화운동에도 앞장

기도 했다.

‘챔프’는 달리기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멈추지 않는다. 지난 연말에는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동사무소에 쌀을 기증했으며, 영산강 정화운동에도 앞장 서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부분 하프코스를 달리는 ‘챔프’는 완주 후 회원들의 시즌 첫 단합대회도 가질 계획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고창고인돌마라톤

원시인 복장에 홀도끼 들고, 우스꽝스러운 화장으로 경기장을 누비며 대회 분위기를 한껏 띄우는 사람들.

고창고인돌마라톤(회장 정병구·이하 ‘고고돌’) 회원들이다. 이들은 전국의 각종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감초’역할을 하고 있다.

복분자 등 특산물 홍보

이번 광주일보 3·1절전국마라톤대회에서도 이들의 퍼포먼스가 기대된다.

그들의 연출 속에는 고향 사랑이 담겨있다. 복분자 등 고향 특산품과 다양한 행사를 알리는데도 앞장 서고 있는 것이다. 군에서도 이들의 홍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로 결성 10년째인 ‘고고돌’은 현재 회원 55명으로 고창에선 유일한 마라톤 모임이다. 해를 거듭할 수록 회원 수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정병구 회장은 고고돌의 올 목표에 대해 “회원간 단합하고, 군민들과 함께하며, 군을 위해 봉사하는 모임이 되겠다”고 밝혔다. 훈련은 평일엔 목요일 한번만 실시한다.



이번 3·1절 마라톤대회에서도 분위기를 한껏 드높일 ‘고고돌’의 퍼포먼스가 기대되고 있다.

고창 공설운동장에 모여 회원들 수준별로 나눠 달린다. 베테랑급은 도깨비 도로로 나서 고난도 코스를 달려, 초급자들은 운동장에서 기본자세 등을 익히며 서서히 달린다.

10km 당 1천원씩 사랑나눔

모임의 ‘말형’인 65세의 황조연씨는 1년에 한번씩 풀코스를 완주하며 ‘젊은체력’을 과시하고 있다. 김병진씨 등 3명은 ‘서브-3’(풀코스 3시간 이내 완주) 보유자이고, 김장범 등 20여명은 풀코스 완주 경험

을 갖고 있다. ‘고고돌’에는 외국인 부부회원도 있다. 남아공 출신으로 원어인 교사인 크리스와 다니엘라는 서투른 한국어로 회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해내고 있다.

‘고고돌’ 회원들은 10km 당 1천원씩 적립해 연말에 육상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전하는 사랑나눔 추억들이기도 하다. 사랑 가득한 건강 달리기 ‘고고돌’의 힘찬 질주가 기대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쇼트트랙 충돌... 메달 싹쓸이 놓쳤다



男 1,500m 결승 성시백·이호석 뒤엉켜... 오노 어부지리 銀

빙속 장거리 간판 이승훈, 5,000m서 아시아선수 최초 메달

금메달에 향한 지난친 경쟁이 역대 동계 올림픽 사상 첫 한 종목 금메달-은메달-동메달 싹쓸이의 기회를 날리고 말았다.

14일(한국시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전이 치러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 콜리세움. 출발점에는 한국의 이호석(고양시청), 성시백(용인시청), 이정수(단국대)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스타트 총성이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승훈(22·한국체대)은 지난 14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부 5,000m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겼다.

이승훈은 6분16초95으로 결승선을 통과, 올림픽 기록을 세운 스펀 크머(네덜란드·

6분14초60)에 2초35 뒤지면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동메달은 러시아의 이반 스크르페프(6분18초05)에게 돌아갔다.

이로써 이승훈은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남자 1,000m에서 은메달을 따낸 김윤만과 지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이강석(한국체대)에 이어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 메달리스트가 됐다.

더불어 아시아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되는 영광도 함께 맛봤다.

한편 전남 소속 바이애슬론 남녀대표 이인복(26·보성군청)과 문지희(23·진도군청)는 투혼을 발휘했지만 아쉽게 하위권에 그쳤다.

이인복은 15일(한국시간) 캐나다 휘슬러

3위로 달리던 이호석이 마지막 코너에서 속도를 높이며 성시백을 추월해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 충돌했다.

중심을 잃은 성시백은 이호석과 엉키면서 함께 미끄러졌고, 이호석의 뒤를 따르던 오노는 어부지리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셀스키는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의 간판으로 떠오른 이승훈(22·한국체대)은 지난 14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부 5,000m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겼다.

이승훈은 6분16초95으로 결승선을 통과, 올림픽 기록을 세운 스펀 크머(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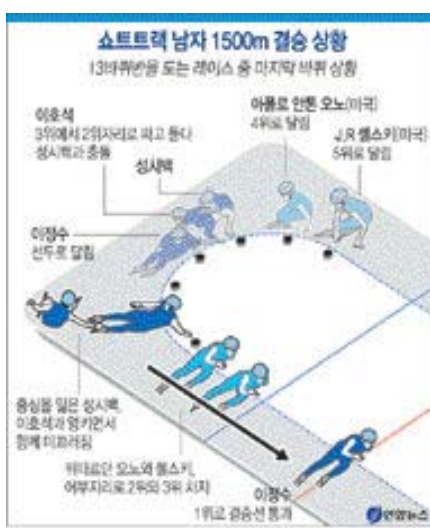
6분14초60)에 2초35 뒤지면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동메달은 러시아의 이반 스크르페프(6분18초05)에게 돌아갔다.

이로써 이승훈은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남자 1,000m에서 은메달을 따낸 김윤만과 지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이강석(한국체대)에 이어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 메달리스트가 됐다.

더불어 아시아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되는 영광도 함께 맛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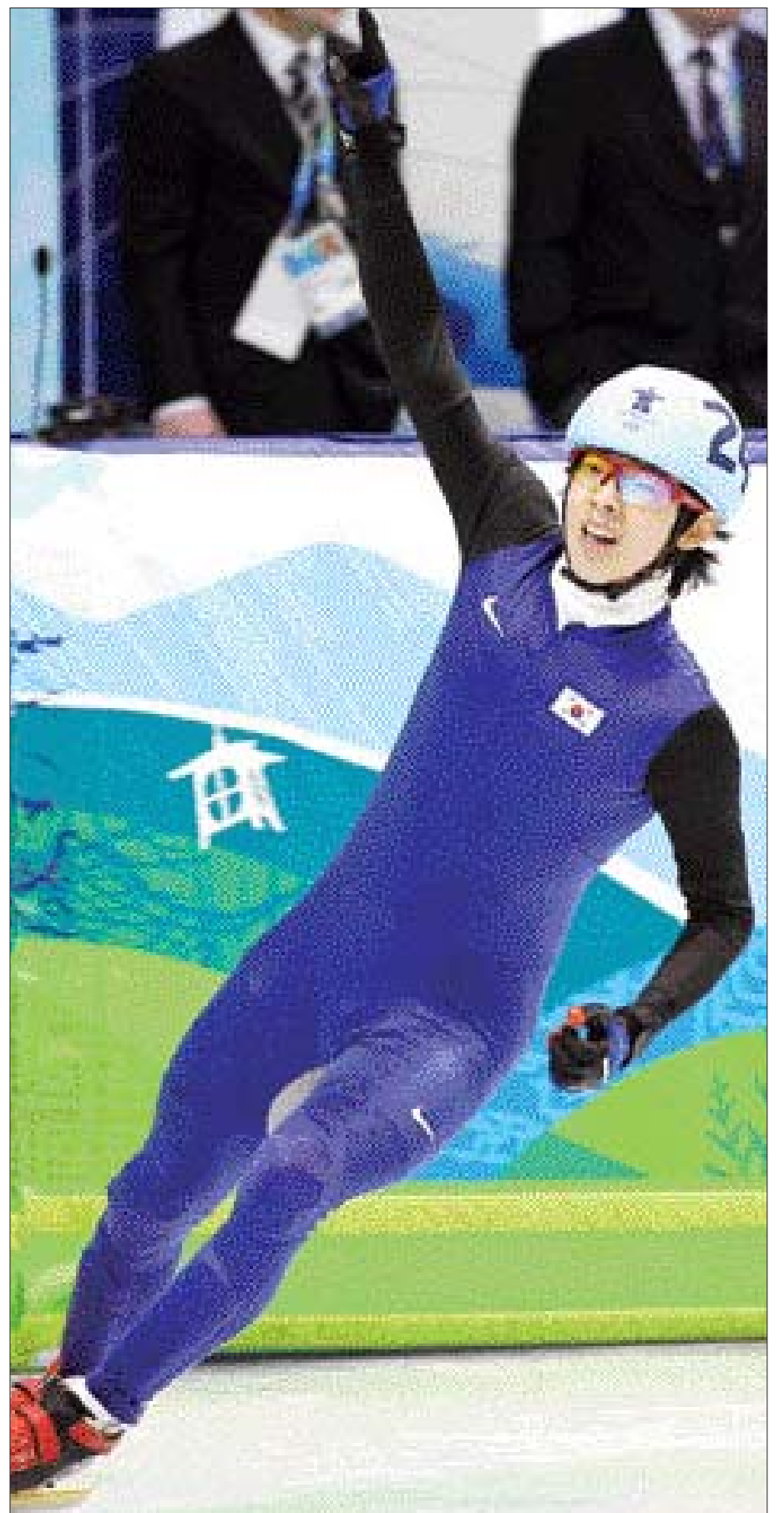
한편 전남 소속 바이애슬론 남녀대표 이인복(26·보성군청)과 문지희(23·진도군청)는 투혼을 발휘했지만 아쉽게 하위권에 그쳤다.

이인복은 15일(한국시간) 캐나다 휘슬러



올림픽파크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남자 10km 스프린트에서 사격에서 4발을 놓치는 등 27분34초1을 기록, 87명 중 65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문지희는 지난 14일 열린 대회 첫날 바이애슬론 여자 7.5km 스프린트에서 옌드러와 서서좌에서 각 1발씩을 놓치며 22분34초01을 기록, 63위에 머물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연합뉴스



지난 14일 밴쿠버 퍼시픽 콜리세움에서 열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천 500m 결승에서 이정수가 1등으로 골인, 금메달을 확정지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혁-이강석 오늘 빙속 500m 금사냥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말형’ 이규혁(서울시청)과 단거리 전문 이강석(의정부시청)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사상 첫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규혁과 이강석을 비롯해 문준(성남시청), 모태범(한국체대)은 16일(한국시간) 오전 캐나다 리저먼드 올림픽 오벌에서 치러지는 남자 500m 결승에 출전한다.

역시 팬들의 관심은 지난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500m 동메달리스트인 이강석과 올림픽 무대 4전5기에 나선 백전노장 이규혁의 메달 경쟁이다. 이강석은 올림픽 무대 2회 연속 메달을 노리고 있고, 이규혁은 자신의 첫 올림픽 메달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이강석과 이규혁은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나란히 랭킹 1, 2위를 지키고 있어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특히 세계기록(34초03) 보유자인 제레미 워더스폰(캐나다)을 비롯해 페카 코스켈라(핀란드), 위펑퉁(중국), 사니 데이비스(미국) 등 무시할 수 없는 금메달 도전자들이 총출동해 신나는 ‘스피드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1992년 알베르빌 대회에서 김윤만이 1,000m에서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고, 2006년 토리노 대회 때 이강석이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14년 만에 두 번째 메달을 수확했다.

/연합뉴스

“반칙왕” 안톤 오노 은메달 자격없다”

쇼트트랙 1500m 금 이정수

“오노의 몸싸움이 심했다. 시상대에 올라와서는 안 될 선수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우승하며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이정수(21·단국대)가 행운의 은메달을 차지한 아폴로 안톤 오노(미국)를 비난하고 나섰다.

경기를 끝낸 이정수는 기자회견에서 “원래 경기 스타일이 마지막에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시작부터 선두를 잡고 경기를 이끌어 갔다”라며 “전력을 기울여 힘을 쓰면 최소 동메달은 딸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나섰는데 우승까지 했다”라고 기뻐

했다. 그는 이어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야 성시백(용인시청)과 이호석(고양시청)이 넘어진 것을 알았다”라며 “한국이 금, 은, 동을 모두 차지할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수는 특히 성시백과 이호석의 충돌로 은메달을 딴 오노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정수는 “오노의 몸싸움이 오늘 심했다. 기분이 불쾌해서 꽃다발 세리머니를 할 때도 표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라며 “시상대에 올라와서는 안 될 선수다. 심판이 못 보면 반칙이 아니라지만 팔을 너무 심하게 썼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